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지역과 함께 최고 민립대학으로”

김춘성 신임 조선대 총장 인터뷰



“이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으로 교내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때입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김춘성 조선대 신임 총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비전 제시를 통해 위기를 넘어야 할 때”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하고 건학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대학이 되고, 대학이 지역이 되는 최고의 민립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총장과 일문일답.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할 공약은?

▲학령인구 감소함에 따라 어려워진 학교의 재정확충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든든한 대학’을 만드는 것이 먼저의 목표입니다.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장점을 살려 대학의 유휴용지 개발을 추진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성 확보, 각종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재정으로는 교육 부문에 투자,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실험 및 현장실습 개선 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확충-교육-산학 간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휴용지 개발·국책사업 유치로
재정 늘리고 산학 선순환구조 마련
유학생 유치·지역인재 국제화 앞장
2000억 투자 유치 은퇴자 마을 조성

-신입생 모집 대책을 소개해달라.

▲‘신입생’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험생으로만 한정한다면 어렵겠지만 그 폭을 일반 시민까지 넓힌다면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막 입학한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기초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이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한 학생들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은퇴자,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격증 과정, 특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건강, 교양, 환경 분야의 과정들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시작된 지방 대학 소멸 등 위기 속에 호남 최대 명문 거점 사학인 우리 대학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글로벌 대학 30’ 선정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학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조선대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전략으로 글로벌 대학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들 중 조선대가 특성화 해 운영할 수 있는 산업들을 광주시와 손잡고 추진할 계획이며 광주를 넘어 전남도외도 협업 체계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과 연계, 취직까지 책임지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 등에 있는 조선대 가족기업 등을 활용, 지역 인재의 취직을 도와 캠퍼스의 국제화도 꾀할 예정입니다.

-대학 연계 은퇴자 마을 조성은 어떤 사업인가

▲대학 연계 은퇴자 마을(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는 대학, 병원, 시니어타운이 복합된 공간입니다. 미국의 경우 스탠퍼드 대학, 플로리다 대학, 리얼대학 등이 은퇴자들을 위한 UBRC를 조성했습니다.

먼저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완공 후 이곳에 입주한 시니어 은퇴자들은 항노화, 질병관리 등 각종 건강 프로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대학 의과대학 약리학실 박사후연구원을 거쳤다. 2009년부터 조선대에 재직하며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치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세대 연계를 이뤄지며 상호공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률 감소, 노년층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 지역소멸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UBRC 운영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학이 캠퍼스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각자의 힘과 역량을 모아 외부 환경에 대응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부의 결집력으로 한 단계씩 성장하다 보면 지역민들 또한 우리 대학을 좋게 봐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이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그램과 교육·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생활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니어 입주자들은 학생들에 취·창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 역할을 하며 소통할 수 있으며,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

“쑥쑥 자라는 꿈...체험과 놀이로 직업 탐색”



회순군 도곡면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전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
30여 직업 아이템 체험관
북카페·스낵바 등 편의시설

어린이직업체험관 키즈라라 동물병원. 영암 미암초등학교 1학년 오소연(8)양과 2학년 김하원(9)군이 수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대 앞에 섰다. 바로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 같은 강아지 ‘뽕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다.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사기로 마취를 한 뒤 배 속에 그대로 두면 위험한 닭 뼈를 제거하기 위해 절개, 봉합 등의 수술을 진행했다. 진짜 수의사와 똑같이 리얼한 체험을 하며 아이들의 눈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같은 시간 키즈라라 특수부대 체험관. 유니폼을 차려 입은 미암초등학교 6학년 신미소(13)양과 4학년 박찬희(11)군이 훈련장 안으로 들어섰다. 특수부대원 체험을 위해서다. 2인 1조가 되어 레이저 미로 장애물을 통과하고 양백 장애물을 넘어가니 사격존이 나왔다. 사격존 모니터에서 영상이 플레이되자 사격 도구와 과녁 등이 깜박였다. 두 아이들은 모형 소총으로 사격을 멋지게 완수했다.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뿌듯해하며 웃었다.

전교생이 11명 밖에 되지 않은 미나학교인 영암 미암초등학교. 이 학교 전교생들이 최근 회순

도곡면에 있는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를 찾았다. 장애를 위해 직업을 탐색하는 ‘진로 체험’을 위해서였다. 미암초등학교 1학년~3학년 각 1명, 4학년 2명, 5학년 5명, 6학년 1명 등 총 11명의 전교생은 오전 일찍 키즈라라 어린이직업 체험관을 찾아 특별한 체험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서로를 알뜰살뜰히 챙기며 직업체험관을 다니며 직접 다양한 종류의 직업별 체험을 했다. 수의사, 유튜버, 치과 의사, 수사관, 은행원

등 30개에 달하는 체험관들 중에 학생들은 하고 싶었던 다양한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평소 직업에 대하여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면서 직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묻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4학년 이지민 양(12)은 “펫부티그, 뷰티살롱에서 직업 체험을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장애 희망이 제방사인데 요리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영암 미암초등학교 김영완 교장은 “전남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라라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 진로체험을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지난 3월 정식 운영 이후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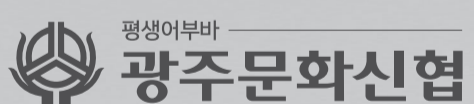
키즈라라에는 30여개 직업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직업체험관’과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체험관’ (키즈카페), 푸드코트, 오리엔테이션



영암 미암초 학생들이 키즈라라 어린이테마파크에서 동물병원 체험을 하고 있다. <키즈라라 제공>

홀 등 편의시설이 있다. 총 면적은 8175㎡ 호남권 최대 규모이다. 지난 6월 전남도교육청과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직업체험 및 탐색

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교원들의 진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등에 상호협력 ▲키즈라라 실내·외를 활용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 자산규모 1조5천억원
-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